

마음이 이끌리고 가슴이 뛰다면 움직여라

- 이 름: 신재광
- 근무기구: 유엔 기니비사우 통합 평화구축 사무소
(UN Integrated Peacebuilding Office in Guinea-Bissau-UNIOGBIS)
- 근무부서: 인권국 (Human Rights Section)
- 직 위: 인턴
- 지원경로: 개별지원
- 근무기간: 2017. 8 - 2017. 12

오래 간직해온 꿈

어릴 적 내 꿈은 비교적 단순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익숙함을 추구하고 늘 안락한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내가 열여덟이 되던 해 우연히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카리브 해의 작은 빈국 아이티의 참상은 삶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먹을 것이 없어 갓 태어난 젖먹이에게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여야만 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며 나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희미하게나마 그려지고 있었다.

학부에서 정치학을, 석사과정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며 여러 국제관계 이론과 유엔의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였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을 많이 느낀 나는 국제기구의 업무, 특히 관심이 컸던 인권분야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유엔 사무국의 채용 포털인 Inspira를 통해 본부와 현장 사무소를 포함, 약 10여 곳에 인턴십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 등에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첨부하여 해당 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을 직접 보냈다. 약 한달 뒤 제네바 유엔본부 사무국장실과 기니비사우의 유엔 평화구축 사무소와의 전화 인터뷰를 거친 뒤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개인적으로 본부의 사무업무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컸기 때문에 나는 주저 없이 서아프리카행을 선택하였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2017년 8월, 인천을 출발하여 홍콩, 아디스아바바, 로마, 다카르를 거쳐 무려 33시간 만에 도착한 비사우 (Bissau, 기니비사우의 수도)의 비에이라 공항은 암흑으로 가득했다.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에 총을 멘 군인이 멀리서 다가오더니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포르투갈어로 돈을 요구하였다. 다행히도 픽업을 위해 공항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동료직원이 당황하고 있던 나를 발견하여 구해(?)주었지만, 공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서아프리카의 끝자락에 위치한 기니비사우는 북쪽으로 세네갈, 동쪽과 남쪽으로는 기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 180만 명 정도의 작은 국가이다. 1998년, 정권에 불만을 품은 군부의 쿠데타로 내전이 발발하여 천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94년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암살과 산발적 소요 등으로 인해 국회 또한 해산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운 대통령이 단한명도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불안정(political impasse)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엔 개발계획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 따르면 188개 국가 중 178위(2016년 기준)로 기니비사우의 태아 사망률, 교육수준, 문맹률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인 비사우에서조차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하여 전기가 수시로 끊기고, 물 공급 또한 불안정하여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제대로 씻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이다. 공공 위생 시스템의 부재로 말라리아를 포함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지만, 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유엔의 분쟁이후 평화구축 임무단(Post-conflict Peacebuilding Mission)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한다. 미국과 코스타리카를 포함하여 10년 가까이 외국생활을 하였고, 25개국 이상 배낭여행을 통해 열악한 조건을 경험하며 적응력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였지만 낯선 땅 기니비사우에서 익숙함과 작별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유엔 기니비사우 평화구축 사무소

2010년 1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새로이 발족한 기니비사우 통합 평화구축 사무소의 임무(mandate)는 유엔 관련기관(UNCT)과의 협력을 통해 크게 4가지 정무적인 주안점(포용적인 정치적 대화 지원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헌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안보 및 법치주의 개혁·국제적, 지역적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강화)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권의 옹호와 보호(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를 위한 모니터링 및 능력 배양(capacity-building), 조직적 범죄 및 마약밀수 감시 등 기니비사우의 평화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내가 속해 있는 인권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3명의 인권담당관과 6명의 현지직원,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5명의 인턴으로 구성된 작은 부서로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의 현장사무소 역할(Human Rights Components of Peace Mission)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인권 관련 국제조약 및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사법절차에서의 비차별·자의적 구금·공권력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과 보고서를 제네바 본부에 제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인권의 싹이 움트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곳 인권국에서 인턴으로서 내가 맡은 첫 번째 업무는 인권관련 고위급 전문가 회의 (Regional High-Level Expert Workshop on Impunity, Justice and Human Rights)의 컨셉트 노트 (note conceptuelle)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2018년 비사우에서 개최될 예정인 회의는 바마코 선언 (Bamako Declaration on Impunity, Justice and Human Rights)을 통해 확인된 지역공동체 (ECOWAS · AU · UNOWAS) 및 역내 국가 간 인권이행 원칙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로드맵 구상을 위해 유엔의 고위급 인사,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의 관계자 및 대법관 등이 참석하는 제법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컨셉트 노트에 이러한 회의를 비사우에서 개최하는 근거논리 (rationale behind)와 목적, 예산 등을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를 UNOWAS 및 OHCHR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콜 (VTC)에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법과 이와 관련한 국제 규범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줄여서 파리원칙>을 비교하여 기니비사우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는 일이었다. 핀란드와 브라질에서 온 인턴들과 팀을 이루어 법률상 인권위의 재정적 · 제도적 독립성 (budgetary and institutional independence)이 보장되는지의 여부와 인권위원들의 다원적 구성 (pluralistic composition)이 파리원칙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의 기준에 맞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OHCHR 및 ICC의 발행물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약 2주간에 걸쳐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니비사우의 국가 인권위원회는 법률상 총리실과 법무부의 관할 아래 있으며 인권위원의 구성 또한 관련 부처 (Line Ministries)에서 파견된 관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특히 인권의 옹호와 보호를 위한 권력의 감시 및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권한 (monitoring and investigative power)과 관련하여 제도적 독립성을 크게 상실한다. 둘째, 現 인권위의 성격과 법적지위는 행정부 내 관계부처 간 인권 관련 회의체인 <보고와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인권 메커니즘—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Up>과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추후 진행된 관련 회의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업무 외에도 인턴들은 관심분야와 관련하여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특히 WFP, UNICEF, UNDP 등이 주최하는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해당 기구의 관계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일도 잦기 때문에 인권

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UNCT 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기니비사우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에 인권이라는 싹이 움트고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언급한 공통적인 답은 ‘시민의 의지 (will of citizens)’ 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욕구 (basic human needs)’ 가 충족되었을 때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지에서 만난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보다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국가의 인권신장을 외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단순하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역량 (Competences)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대게 마주하는 두 가지 현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막연함’ 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인 것 같다. 본인 또한 국제기구를 준비하는 동안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수많은 경험담과 자료를 스크랩하며 상당한 시간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데 할애하였고,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정해진 ‘모범답안’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수많은 국제기구의 직원들은 변호사부터 회계사, 경찰, 경제학자, 식물학자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기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들 또한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게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세 가지 역량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국제기구는 무엇보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Professionalism)’ 이 우선시되는 곳이다. 전문성이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크게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통한 학문적인 전문성과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통한 실무적인 전문성을 의미한다. 국제기구에는 신입사원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만큼 근무에 투입이 되는 첫 날부터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팀을 꾸려 시작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 또한 인턴십이 시작되는 첫 날부터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와 기니비사우 정치상황 관련 안보리 토의내용을 요약하여 분석표 (analytical table) 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었다.

둘째,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자세 (Integrity)’ 를 가져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닌 수많은 당면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뚜렷한 인간적 신념과 직업적인 사명감을 뜻한다. 기니비사우를 포함한 현장 사무소 대부분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가족이 동반할 수 없는 근무지 (non-family duty station) 인 경우가 많은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떨어진 채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러한 신념과 사명감이 없이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꿈꾸고 있다면 뉴욕이나 제네바 같은 본부도 좋지만 현장 사무소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사명감과 헌신에 응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냉철히 자신을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소통 (Communication)’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국제기구에 근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여기서 소통역량이란 단순히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 타문화권과 다른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함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국제기구의 업무가 개인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조직 내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해 영어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상대방 혹은 대중에게 말과 글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와 함께 불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의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면 본인의 활동영역이 아프리카, 중동, 남미로 확장되므로 국제기구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짧게만 느껴진 5개월의 인턴십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꿈꿔왔던 유엔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열정과 사명감 넘치는 많은 동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곳 기니비사우에서 국제기구의 치열한 현장의 업무를 내 눈과 귀로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이 소중한 경험을 발판삼아 나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더 깊게 탐구해보고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 글이 국제기구 인턴십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음이 이끌리고 가슴이 뛰고 있다면 당당히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끝/

<붙임: UNIOGBIS 인턴십 활동기간>



비사우의 대통령궁



유엔의 날 기념행사



인권국장님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연수



유엔의 차량 앞에서



비사우의 중심가